

성폭력의 실태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성폭력 현황과 실태를 개관하였다. 성폭력은 여러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관에서는 강간과 성희롱을 포함시켰다. 동시에 강간도 몇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므로 데이트 강간과 아내강간 그리고 아동 성폭력을 함께 개관하였다. 개관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한해동안의 성폭력 발생건수는 약 25만건에 이르나 신고율은 2.2%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계층의 모든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어 무특성이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각종 강간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모든 계층의 모든 남성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잠재적 가해자를 사전에 인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아직도 성장과정에 있기 때문에 피해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증상을 나타내므로 각기 다른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다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재피해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아동 성폭력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핵심어 : 성폭력

I. 문제의 제기

한국은 성폭력 발생율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나라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의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의 발생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1989년 한해동안 약 25만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그 결과 한국의 모든 여성들은 일생동안 한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한다고 보고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성폭력의 신고율은 단지 2.2%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낮은 신고율에 의해 성폭력은 숨은 범죄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것의 심각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의 낮은 신고율은 성폭력 범죄를 은폐시켜 그것이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 사회의 성폭력 발생이 이렇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데도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사회는 피해 여성이 성폭력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한 결과로 혹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으로 강한 성충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은 여성들이 조심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성욕은 얼마든지 자제될 수 있고 단지 남성이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선행연구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장필화와 조형, 1991). 최근의 가해자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의 80% 이상이 성충동에 의해서 일어나기 보다 오히려 분노나 소외감의 표현이기 쉽고 남성다움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저질러지는 계획된 범죄라는 것이다(최영애, 1995).

이와같은 성폭력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일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것의 현황과 실태를 개관하려고 한다. 동시에 성폭력 범죄 중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는 강간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을 개관하고 특히 강간의 유형 중 데이트 강간과 아내강간 및 아동 성폭력을 개관하려고 한다.

II. 성폭력

1.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서 강요된 키스나 신체 일부분의 애무에서부터 강간미수와 강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1994년 4월 성폭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외에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

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포함된다. 그러나 여성학적,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이외에도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등이 포함되고 아내강간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은 성폭력의 유형을 그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희롱, 가벼운 추행, 심한 추행, 강간미수, 강간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성폭력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여성의 인지를 가장 중요시하였으며, 예컨대 강간의 규정에서도 폭력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여성이 강간으로 지각하면 그것을 강간으로 규정하였다.

대조적으로 이경자(1992)는 성폭력의 범위를 성적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와 음란물 제작에 이용하기, 윤락행위 강요 그리고 음란전화로 설정하였다. 이경자에 의하면, 성적추행은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포함하는 반면, 강간은 아내강간을 포함하여 윤간, 강도강간 그리고 근친강간과 함께 구강성교, 항문성교 그리고 다른 물질을 삽입하는 것 모두가 강간으로 규정된다. 이와같이 연구자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이나 범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행위의 강제성이다.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성적행위는 그 관계가 부부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폭력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이 성폭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 강간의 경우를 볼 때, 가해자가 모르는 남성인 경우 강간으로 인지되는 비율이 높으나 직장상사, 오빠, 친구, 고객, 애인, 남편 순으로 사이가 친밀해질수록 강간으로 인지되는

비율은 감소한다(심영희, 1990). 많은 여성들은 잘 아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강간으로 자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강간에 대한 지각의 차이에 의해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폭력의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2.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의 발생비율

실제로 성폭력은 어느 정도로 발생하고 있는가? 서울시에 거주하는 229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74.6%가 가벼운 추행을, 74.5%는 성기노출을 그리고 48.6%가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음란전화통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46.3%, 심한 추행을 경험한 사람은 23.7%, 강간미수, 14.1%, 강간, 7.6%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사람은 6.5%에 이르고 있다.

보다 최근의 자료로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1995년 한해동안 이루어진 전체 1238건의 상담사례 중 성폭력 관련 상담이 1021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한다. <표1>과 같이 강간은 전체 성폭력의 55.2%를 차지하고 성인은 직장내 강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강간 그리고 데이트 강간에 의해 피해를 많이 입는 반면, 청소년과 아동들은 아는 사람, 특히 근친에 의한 피해를 많이 입는 경향이 있다. 전체 성폭력 피해 중 성추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로서 성인은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을 많이 당하였고 아동들은 동네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교사나 강사에 의해 성추행을 많이 당하고 있어 강간사건과 대조를 이룬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표1>은 남성피해가 전체 성폭력 피해의 4.8%를 차지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여기서의 남성피해는 대개 남아 피해로서 국민학교 아들에게 중학생이 그리고 중고등학생에게 선택배나 어른 남자가 성추행을 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남성피해의 경우에도 성인 남성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성폭력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표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강간이든 성추행이든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64.8%에 이르고 있어 성폭력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질러진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의 자료에서도 가벼운 추행에서만 6.6%의 낮은 비율을 나타낼 뿐 심한 추행의 80.6%, 강간의 80.1%, 강간미수의 78.1%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의 74.3%가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져 심한 성폭력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추행의 많은 비율이 아동과 혈연관계에 있는 근친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지는 범죄라고 볼 수 있다.

2) 피해자의 특성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제시한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는 <표2>와 같다. 20세 이상의 성인 피해자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19세 이하의 피해자들이 전체 피해여성의 43.46%를 차지하고 그 중 13세 이하의 아동 피해자들이 전체의 21.73%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한 96명의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이경자(1992)에 의하면, 30세 이상의 연령층

표 1. 성폭력의 실태

	유형			가해자		피해자					소계	고소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성폭력 1021 (100)	성폭행 564 (55.2)	일반 강간 525 (51.4)	아는 사람 387 (37.9)	친족 106 (10.4)	아버지, 오빠	6	37	25	3	-	71(6.9)	6			
				친, 인척	14	8	12	1	-	35(3.4)	3				
				동네사람		15	9	16	3	-	43(4.2)	13			
				데이트상대		40	10	-	-	-	50(4.9)	2			
				직장상사, 동료		82	9	-	-	-	91(8.9)	12			
				교사, 강사		4	10	-	1	-	15(1.5)	1			
				동급생, 선후배		7	14	-	1	-	22(2.2)	3			
				기타		43	11	5	1	-	60(5.9)	13			
				모르는 사람 120(11.7)		52	42	24	2	-	120(11.7)	22			
				미상 18(1.8)		13	3	1	-	1	18(1.8)	-			
		윤간					21	16	2	-	-	39(3.8)	8		
	성추행 408 (40.0)	일반 성추행 330 (32.4)	아는 사람 27.4 (26.9)	친족 39(3.8)	아버지, 오빠	1	10	3	3	-	17(1.7)	-			
				친, 인척	5	3	7	7	-	22(2.2)	-				
				동네사람		17	5	23	55	-	100(9.8)	18			
				데이트상대		6	1	-	-	-	7(0.6)	1			
				직장상사, 동료		63	3	-	-	-	66(6.5)	9			
				교사, 강사		4	5	10	2	-	21(2.1)	2			
				동급생, 선후배		7	3	1	1	-	12(1.2)	-			
				기타		19	1	3	5	1	29(2.8)	4			
				모르는 사람 4(5.3)		21	2	15	16	-	54(5.3)	9			
				미상 2(20.2)		-	-	1	1	-	2(0.2)	1			
				강간미수 31(3.0)					22	5	3	1	-	31	(370)
				언어추행 47(4.6)					22	5	3	1	-	31(3.0)	7
				언어추행 47(4.6)					45	2	-	-	-	47(4.6)	7
				남성피해 49(4.8)					15	27	6	1	-	49(4.8)	-
계						522(51.1)	236(23.1)	157(15.4)	104(10.2)	2(0.2)	1021	134(13.1)건			

에서도 성폭력의 피해가 적지않게(5.8%) 발생하고 있어 성폭력은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사회경제적, 가정환경적 특성을 발견할 수 없어 무특성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으로 밝혀져 성폭력은 연령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어떤 여성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피해임이 밝혀졌다.

성폭력 피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경자, 1992; 최영애, 1995; Russell, 1988)은 일관성있게 성폭력 피해에서 나타나는 '재피해의 취약성'을 지적한다. 즉 한 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재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경자의 연구에서 단 1회의 성폭력을 당한 사람은 전체 96명의 피해자 중 57.3%를 차지한 반면, 2회가 36.0%, 3회가 9.4% 그리고 5회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피면접자도 6.3%에 이르러 재피해의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근친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들의 피해가 반복적이고 장기적이어서 재피해의 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이경자가 제시한 반복 피해사례 중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분포

연령	0-7세	8-13세	14-19세	20세 이상	미상	계
사례수	106	163	269	694	6	1238
비율	8.55	13.16	21.72	56.10	0.47	100 (%)

〈성폭력 피해 사례〉

나에게 성폭력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건은 여러번 있었다. 만 5세때 외삼촌이 나의 생식기 부분을 애무한 일이 한 번 있었다. 그후 12세때 내가 잠을 자고 아침에 막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역시 외삼촌이 나의 엉덩

이를 애무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었다. 그 후 19세 때 한적한 들길에서 학교선배와 데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치한이 나타나 거의 강간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결국 학교 선배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완력으로 꼼짝 못한 상태에서 일년동안 거의 매일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과 강간을 당하였다.

(이경자 연구에 제시된 사례 중 25세인 주부의 사례)

피해여성들은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사회적 통념처럼 여성들이 성폭력을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성폭력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가? 피해여성들이 피해상황에서 저항하는 방식을 연구한 심영희(1990)에 의하면, 말이나 소리에 의한 저항(소리침, 설득, 협박, 속임, 벌고 애원, 핑계 등)이 가장 많았고(48.8%) 그 다음이 아무 말이나 행동도 못한 경우였으며(32.5%), 행동이나 힘으로 저항(뛰어서 도망, 힘으로 저항하고 싸움)했다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18.8%). 특히 강간 피해여성의 경우에 아무 말이나 행동도 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높아 폭력이나 협박 혹은 무력에 의한 가해자의 행동 때문에 저항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물론 말이나 행동으로 저항한 경우에는 강간이 일어나기 보다 강간미수에 그쳤을 가능성이 더 높다.

3) 가해자의 특성

이경자의 연구에서 가해자의 연령은 20세이상-30세미만의 남성들이 가장 많았고(33.0%) 그 다음이 30세이상-40세미만(28.2%)이었으며 15세이상-20세미만과 40세이상-50세미만의 비율은 각각 17.6%와 15.3%였다. 또한 15세미만에 속하는 청

소년 가해자는 물론(2.4%) 60대의 남성 가해자도 있어 모든 연령층의 남성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해자의 교육정도와 사회경제적 지위도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특징을 보였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를 살펴보면 가벼운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안에서 대부분 일어나고(75.5%) 심한 추행은 한적한 길거리나 골목(22.6%), 야외의 한적한 곳(17.2%) 그리고 술집이나 유흥업소(16.6%) 혹은 가해자의 집(11.4%)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강간미수는 야외의 한적한 곳(26.4%), 가해자의 집(20.8%) 그리고 숙박업소(19.5%)에서 많이 발생하였고 강간은 숙박업소(39.6%), 야외의 한적한 곳(22.0%), 그리고 가해자의 집(18.3%)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 대조적으로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의 집(33.3%)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이 복잡한 길거리나 시장터(16.7%), 가해자의 집(18.1%), 야외의 한적한 곳(13.8%)의 순이었다. 성폭력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친척집에서 일어나는 비율(8.7%)도 높은 편이었다.

어떤 연령층의 가해자이든 성폭력을 저지를 때에는 몇가지의 전형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육체적, 물리적 강제방식(폭력이나 협박 혹은 술이나 약물의 사용)이나 심리적, 경제적 강제방식(위력, 위계, 속임수 혹은 애원의 사용)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 물랑공세나 애원 혹은 속임수와 같은 경제적, 심리적 방식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심한 추행의 절반정도가 한적한 장소를 이용하여 일어나고 아동 성폭력의 70% 이상이 그들의 순진함을 이용하는 방식이 채택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모든 연령층의 모든 남성들은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대단히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재적 가해자를 식별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성폭력 가해자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몇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Ageton(1983)에 의하면, 그들은 성폭력을 부추기는 또래집단을 가지고 있고 가족폭력의 역사와 난잡한 성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 충동적 성격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쾌락주의적 성충동이 성폭력을 저지르도록 하기 쉽다.

3. 성폭력의 영향

성폭력의 피해는 단기적 영향과 함께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고 그 영향과 후유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중다차원에서 나타난다. 특히 강간이나 윤간과 같이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피해당시의 단기적 피해도 컸을 뿐아니라 시간이 경과될수록 더 큰 후유증을 갖게 되어 성폭력의 경험은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직후 외상후 긴장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s)로 고통을 겪는다. 외상후 긴장장애란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경험하는 일련의 증상으로 사고 순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잠들기 어렵고 악몽에 시달리며 주위환경에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는 동시에 사고를 초래한 대상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장휘숙, 1996 참조).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피해여성들은 단기적으로 신체적 외상이나 성병의 감염, 혹은 임신하는 사례도 있으며 정서적으로는 공포와 불안, 우울, 불면, 남성에 대한 강한 혐오를 경험한다. 특히 강간 피해자들은 순결이나 정조를 상실했다는 고통에 시달리며 자기비난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후유증이다. 이경자(1992)의 연구에서 심각한 성폭력 피해자들일수록 두통에 시달리고 자주 우울해하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였다. 또한 신경질과 짜증이 늘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우울증,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으로 발전하였다. 그들은 병적 식욕과다나 식욕감퇴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들은 가족으로 부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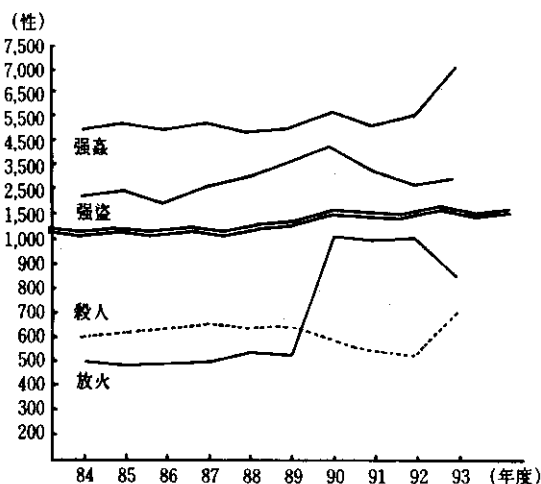


그림 1. 강간과 다른 강력범죄들의 발생추이

출처: 범죄백서, 1994.

점차 고립되고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포기하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였다. 타인에 대한 강한 불신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대인관계를 단절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알콜중독자나 약물중독자가 되는 사람도 많아 부모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았다.

성폭력의 가장 큰 피해는 개인의 성적 기능에서 나타난다. 성폭력 피해에 기인된 남성에게 대한 강한 혐오는 정상적인 성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성적 불감증이나 성적 죄의식을 갖게 하여 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게 만드는가 하면 정반대로 성행위를 과도하게 추구하고 여러 남성과 성관계를 가지며 결국 윤락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성폭력 피해여성들이 위에 제시된 증상들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성폭력 경험은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포함하여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와 가해자의 행동방식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또한 피해자 개인의 성격특성이나 가족특성 그리고 친구나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따라 피해자의 반응과 회복은 차이를 보인다. 한국 여성들보다 성에 대해 더 진보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미국 여성들의 경우에도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26%가 피해후 4-6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여전히 성폭력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다는 보고가 있다(Koss & Burkhardt, 1989). 강간미수 피해자의 47.1%와 강간 피해자의 54.9%가 성폭력의 일차적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아직도 여성의 순결이 문제가 되는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개인의 성폭력 경험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III. 강간

강간이란 우리나라 형법에 의하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교를 말한다. 이 때의 성교란 가해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질속에 삽입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강성교, 항문성교와 함께 다른 이물질을 삽입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나 여성학적 관점에서는 이와같은 법률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성에 관계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저항형태나 정도에 관계없

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인 성관계 행위를 모두 강간으로 규정한다. 그들은 강간이 성범죄가 아니라 폭력적 공격의 한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고 강간 가해자를 남성에 국한시키고 부부간의 강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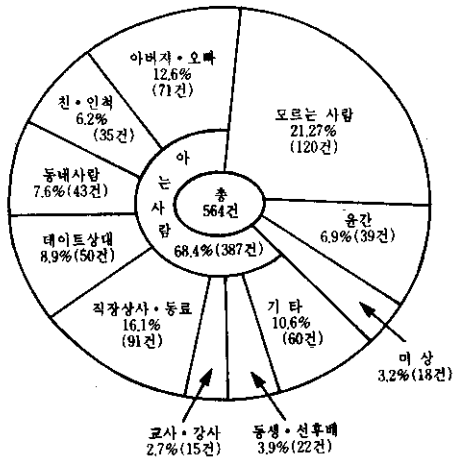


그림 2.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까지의 강간에 대한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죄분석(1986-1990)에 의하면, 강간은 1980년대 중반 이래로 인구 10만명당 12건 안팎의 발생율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의 강간이란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각 조의 죄 가운데 혼인빙자 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즉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 추행, 강간 등 치사상, 미성년자 등 간음추행, 보호자(감독자) 간음, 미성년자의 재강간 및 강제추행의 죄를 포함하고 가해자는 남성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분석에 제시된 수치는 어디까지나 기소된 강간사건에 한할뿐 실제의 발생율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간 사건이 지니고 있는 특성상 실제의 발생비율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은 강간과 다른 강력범죄들의 발생추이

를 나타낸다. 강간은 가장 높은 발생비율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1992년과 1993년을 비교했을 때 5447건에서 7051건으로 증가하여 29.4%의 증가를 보였고 1984년의 발생지수를 100으로 하면 1993년도에는 129로 증가한 셈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은 수사재판기록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단순 면식수준 이상의 비율이 65.3%이고 면식 정도의 측면에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수준을 포함한 그 이상의 정도에 해당하는 비율이 57.4%에 이른다고 보고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피해자를 잘 아는 사람들이 강간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Russel(1984)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낯선 사람보다는 데이트 상대나 남자 친구에게 강간당하기 더 쉽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림2〉는 한국성폭력상담소(1995)가 보고한 강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 강간의 68.6%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백서(1994)에 의하면, 강간사건의 68.5%가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가해자의 연령은 20-30세가 38.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31-40세로 24.8%, 그리고 19세 이하가 23.2%로서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강간 가해자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학력자가 가장 많아 44.3%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중학교(21.2%), 국민학교(16.2%) 순이었다.

그러나 강간은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낯선 사람 강간(stranger rape), 아는 사람 강간(acquaintance rape), 데이트 강간(date rape), 부부 강간(marital rape), 아동학대(child sexual abuse) 그리고 근친상간(incest)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강간행위의 다양성으로 데이트 강간과 부부강간의 실태를 알아보고 아동학대와 근친상간을 묶어 함께 고찰하려고 한다.

1. 데이트 강간

데이트 강간이란 아는 사람 강간의 한 형태로서 데이트하는 남녀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없이 물리적인 힘이나 협박 등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는 사람 강간과의 차이는 서로에 대해 친밀감이나 신뢰감이 있다는 것이다. Koss(1985)는 데이트 강간을 겉으로 보기에 성적인 친밀감이 있는 사이에서 남성이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해 여성의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데이트 강간의 가해자는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대조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1992)는 보다 더 우리 실정에 맞게 데이트 강간을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라고 규정하고 데이트 강간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서 14세 이상이라고 한 것은 아동 성폭력과 구별하기 위해서이고 이성애의 감정을 언급한 것은 아는 사람 강간은 물론 동성애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데이트 강간은 일반 강간과는 다르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강간에 의해 시작된 결혼생활에서 다른 문제(구타, 유기 등)들이 발생할 때 드러나는 것이 그 특징이다. 특히 강간에 의해 순결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과 결혼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 중에는 결혼후에 남성 가해자의 구타와 학대에 의해 고통받는 여성들이 많다.

1) 데이트 강간의 실태

데이트 강간만을 구분하여 보고한 공식적 통계 자료는 없으나 한국성폭력상담소(1992)에서 보고한 상담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1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뢰된 전체 상담사례 1002

건 중 데이트 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였다. 또한 강간 가해자를 연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강간사건 중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애인, 친구, 선후배 및 직장동료인 관계는 전체 강간사건의 15%내외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본 사람 혹은 소개받은 사람이 가장 많았고(20.3%) 그 다음이 애인(18.8%), 친구, 동창, 선후배(15.6%), 처음 만난 사람(14.1%), 그리고 회사동료, 상사, 교동료(12.5%) 등의 순이었다. 처음 만난 경우는 주로 술좌석이나 길거리, 택시안, 혹은 학원이나 야외에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었다. 가해자를 알게 된 시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 만난 당일, 즉 최초의 만남(25%)에서 강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이 1-5년된 사람들 사이에서(20.3%) 그리고 장기간 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15.6%) 순으로 데이트 강간이 많이 발생하였다. 최초의 만남에서 강간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면 데이트 강간이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는 사실은 강간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임을 나타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하면,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 연령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10대, 30대, 그리고 40대 순이었다. 가해자의 연령은 30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이 20대 그리고 40대 순이었으나 미상이 절반을 넘어 가해자의 정확한 연령별 분포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범죄백서는 물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전체 강간범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0대, 30대 그리고 40대 순이어서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는 미상이 많아 10대 가해자의 연령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회사원이 가장 많았고 학력도 피해자, 가해자 모두 대졸자들이 가장 많았다. 이와같은 결과는 무직,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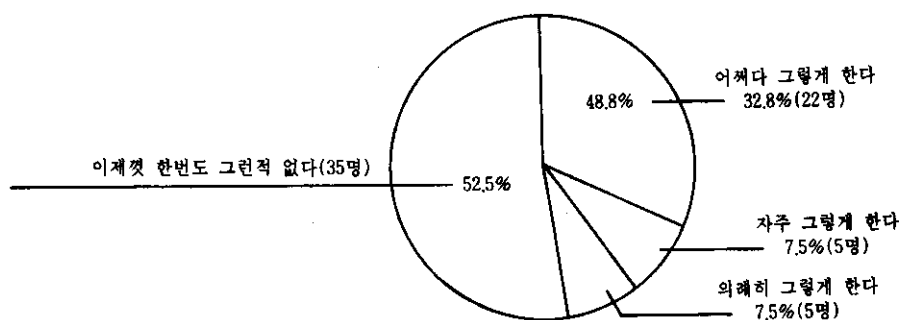


그림 3. 아내구타후 성관계의 요구정도

출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직, 생산기술직 및 학생들이 강간 범죄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해자 스스로 하류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2.9%에 이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의 자료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결과는 데이트 강간이 실제로 대졸 회사원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담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데이트 강간이 일어난 장소는 숙박업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해자의 집, 야외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결혼상태는 미혼이 가장 많았으나 기혼여성은 전체 피해여성의 7.8% 그리고 기혼남성은 전체 가해남성의 15.9%를 차지하였다. 전체 피해여성 중 31.3%는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다.

데이트 강간 피해자들 중 15%내외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의식이 없었다고 응답하여 술과 강간사이에 상관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강간 가해자의 1/3-2/3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보고가 있다(Russel, 1984; Marjot, 1982).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강간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을 때 80% 이상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음주는 강간에 대한 남성의 자제

력을 감소시키고 여성의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분명하다.

2) 데이트 강간의 영향

데이트 강간의 피해자들도 일반 강간이나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과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 더욱이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경험한다. 동시에 그들은 신체적 질병이나 임신을 경험하기도 할 뿐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이나 두려움, 순결 상실감, 죄책감, 좌절감, 및 남성혐오감을 경험하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한다.

2. 부부강간

부부강간은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내강간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된다. 아내 강간은 사회적 통념상 성폭력으로 인지되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의 범죄행동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의 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에게 남편의 강요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교를 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7.3%(812명)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부사이의 이와같은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느냐는 질문

에 대해 당시에 그치고 지금도 강간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4.9% 그리고 당시에는 강간으로 보지 않았으나 지금은 강간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16.9% 여성 강간으로 지각하는 응답자는 21.8%에 지나지 않았다. 동시에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전체의 30.9%였고 이 중 강제적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여성은 38.6%(114명)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내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처벌하자는 의견에 대해 즉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1.3%에 지나지 않았으며 나머지 여성들은 처벌을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48.3%)라고 응답하거나 처벌할 일이 아니다(30.4%)라고 응답하였다.

아내강간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 그들은 구타당한 후 두려움과 통증으로 꼼짝 못하는 아내에게 난폭하게 성관계를 강요한다. 김광일(1987) 조사의 54% 여성들이 그리고 <그림 3>와 같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조사의 48.8%가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후 성관계를 강요당했다.

한편, 한국여성의 전화(1992)가 1983년부터 1992년 5월 30일까지 받은 전체 30,903건의 상담 중 구타상담은 32%를 차지하며 이중 구타후 남편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한 여성들은 27%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으로부터의 구타에 의해 정신과를 찾아온 여성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김광일(1985)에 의하면, 조사대상 환자들의 62%가 구타직후 강간당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 중 6%는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타 및 강간을 당하였고 20%는 적어도 자녀들이 눈치챌 수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성행위와 관련된 명령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다. 유사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아내 구타자인 남편과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온 여자환자의 남편 및 여성의 섬터를 찾아온 아내의 남편들을 대상으로(구타 남편 70명) 연구

한 김영아와 이죽내(1995)는 구타후 아내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행위를 하는 남편이 전체의 28.6%(20명)이고 아내를 나체로 벗겨놓고 구타하는 남편이 15.7%(11명) 그리고 구타당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성감을 느낀다는 남편도 5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남성의 성은 폭력과 뒤얽혀 있다는 Wilson 등(1989)의 주장대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성들의 상당수는 구타후 사과나 화해의 방법으로 거의 죽음 상태에 이룬 아내와 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의 대부분이 계층이나 교육정도와 상관없이 폭력가정 출신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김광일, 1985; Schechter, 1982). 물론 구타후 성행위하는 남성들도 거의 예외없이 폭력가정 출신들이었다(김영아와 이죽내, 1995). 즉 아내강간을 일삼는 남성들은 부모로부터 구타를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한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학습한 사람들이다.

3. 아동 성폭력

1) 아동 성폭력의 정의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나 아동 성폭력은 만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형법은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범죄인 것처럼, 아동 성폭력도 대부분 여아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일방적인 폭력범죄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1996)에 의하면,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94.5%가 여성이고 가해자의 99.4%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이것을 뒷받침한다. 미국에서는 아동들의 친구나 형제 혹은 어린 아동들에 의한 성폭력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연령차이가 5살이상이 되어야만 아동 성폭력이 성립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Russell, 1983).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아동 성폭력의 피해유형을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누고 강간을 다시 일반강간,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치상으로 그리고 성추행을 강간미수, 성추행, 언어추행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장연집(1992)은 아동 성폭력속에 강간(성기삽입, 항문성교 포함), 애무(구강, 성기관 접촉행위 포함), 수음(상호 자위행위 포함), 피로힘(아동의 성기관을 만지는 행위, 일부러 보는 행위, 상호노출 등), 가해자의 성기관을 보여주는 행위, 가해자의 성기관을 만지게 하는 행위,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돈벌이를 위해 아동에게 성적 접촉을 하게 하는 성적 착취행위, 알콜복용, 약물복용 및 신체 학대를 동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착취행위 등을 포함시켰다. 한편 이종걸(1996)은 아동 성폭력을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 성폭력과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성폭력으로 분류하고 전자는 성적 언동, 노출, 훑쳐보기를 그리고 후자는 구강-성기접촉, 대퇴부성교, 성적삽입, 그리고 강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성적삽입에는 손가락삽입, 물체삽입, 항문성교 등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라 아동 성폭력의 유형을 설명하는 방식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분명한 것은 아동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 성폭력이란 생리적, 심리적 측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미숙한 아동들에게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인 접촉은 없어도 그와 유사한 충격적인 행위를 하는 것으로 다양한 성적 착취행위를 포함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아동 성폭력의 실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들이 경험한 성폭력 피해중 아동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에 이른다. 또한 1995년 한해 동안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의뢰된 전체 상담건의 30.1%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아동 성폭력의 발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아동 성폭력도 심각한 사례만 보고된다고 볼 때, 현실적인 발생율은 통계치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이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행사하는 폭력임을 감안할 때, 13세 미만의 어린 여자 아동들은 여성이자 아동이라는 점에서 이중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나 가족내에서 쉽게 성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3. 아동 성폭력의 피해 유형

피해자의 연령 피해유형		유아 (0-7세)	어린이 (8-13세)	계
강간 38.8%	일반강간	10	93	103
	특수강간		8	8
	특수강도강간		3	3
	강간치상	1	4	5
성추행 61.2%	강간미수	1	4	5
	성추행	94	88	182
	언어추행		1	1
합계		106건 (34.5%)	201건 (65.5%)	307건 (100.0%)

〈표 3〉은 1995년 한해동안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의뢰된 아동 성폭력의 피해유형들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6). 성폭력 피해의 65.5%가 8-13세 아동들에게서 일어났고 나머지 34.5%는 7세 이하

의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아동들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폭력의 대상이 아동이다 보니 성추행이 강간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일어나고 있고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아동들에서는 성추행이 그리고 8-13세 아동들 사이에서는 강간피해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상담소가 제시한 피해아동과 가해자와의 관계는 <표 4>와 같다.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0%에 이를 정도로 아동 성폭력은 주로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친부나 의양부를 포함한 친족에 의한 피해가 29.6%에 이르고 있고 특히 피해자와 부녀관계를 이루는 가해자가 친족 가해자의 59.2%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일찍이 Tierney와 Corwin (1983)도 어린이 성폭력의 유의미한 비율이 가족 내에서 일어나며, 아버지, 계부, 그리고 어머니의 남자 동반자가 가해자의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표 4>는 친오빠나 사촌오빠에 의한 피해도 친족 가해자의 28.6%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근친상간에 의한 아동 성폭력은 1) 부부 사이에 성적 역기능이 있는 가족 2) 가족 내에 존재하는 만성적인 긴장(실직, 가난, 고립)에 의해 아동학대나 알콜남용이 일어나는 가족 3) 아동이 부모의 역할을 대신 행하는 가족 그리고 4) 세대간의 한계가 불명확한 가족내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Calof, 1987; Finkelhor, 1984).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고학력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가해자도 많았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가해자인 아버지들이 배우자와 정상적인 성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도로서 딸을 강간하였다. Finkelhor(1984)은 아버지가 아동에 대해 애정이 없고 보수적 가족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때 근친상간적 학대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가해자인 아버지들은 부모로부터 애정을 받지 못했고 구타와 학대의 아동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동기 동안 어머니가 가출하거나 아동 성폭력의 가해자 경험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한국성폭력상담소, 1995).

3) 아동 성폭력의 영향

우리나라에서 친족 성폭력이나 아동성폭력의 심각성을 세상에 알린 사건은 김부남 사건(1991)과 김보은 사건(1992)이다. 9세인 어린나이에 성폭력을 당하고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해자를 살인한 김부남 사건이나 계부에게 지속적인

표 4.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

관계		수(%)		
아는 사람	친족	친부	45(13.6)	
		의양부	13(3.9)	
		친오빠	15(4.5)	
		사촌오빠	13(3.9)	
		외(삼촌)	11(3.3)	
		조부	1(0.4)	
	이모부		3(0.9)	
	어머니의 애인		3(0.9)	
	동네사람	학교, 학원근처가게	2(0.6)	
		이웃사람	88(26.6)	
	사제지간	학교교사	11	15
		학원강사	4	(4.5)
	동급, 선후배		23(6.9)	
	학교나 학원관련(기사, 급사 등)		4(1.2)	
	경비(아파트, 연립 등)		10(3.1)	
	판매원, 배달원 또는 사칭		3(0.9)	
	기타		9(2.7)	
모르는 사람		65(19.6)		
미상		8(2.4)		
계		331(100.0)		

로 성폭력을 당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재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 모두 아동 성폭력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동성폭력의 후유증은 신체적, 성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 단기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 신체적으로 질 손상이나 처녀막 파열, 성병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임신할 수도 있으며 장기적인 골반통증이나 성기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성폭력을 경험한 직후 많은 아동들은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피해직후 아동들은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을 혐오하고 성에 대한 공포를 갖거나 성적 불감증을 나타낸다. 또한 정반대로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나타내어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후유증도 커서 피해직후 학교가기를 거부하고 무단결석을 하며 가출, 매춘, 알콜이나 마약의 남용 등 장기적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심리적 후유증이다. 피해아동들은 공포나 불안, 분노, 우울, 순결 상실감으로 고통을 받고 퇴행적 행동을 하며 악몽과 불면증 및 야뇨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에 대한 혐오와 무기력, 자포자기의 증상과 함께 신경쇠약이나 정신분열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요한 사실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들이 아직도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피해시기에 따라 각기 상이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아동이 어릴수록 내면화된 행동상의 표현이 많은 반면, 아동이 성장할수록 피해후유증은 외면화된 행동으로 나타난다(장연집, 1992).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장기간 계속되고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 의한 성폭력일 때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Russell, 1986; Finkelhor, 1984). 성폭력에 의해 친밀한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짐으로써 피해 아동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불신하게 되고 그들이 갖

게 되는 극도의 분노는 피해당사자들을 황폐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Russell (1986)은 아동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피해 경험이 없는 아동들보다 성인이 되고난 다음에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2-4배 정도 더 많다고 지적함으로써 재피해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IV. 성희롱

영어의 sexual harassment와 상응한 의미로 사용되는 성희롱은 성을 소재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이다. 그러나 영어의 sexual harassment는 성적인 괴롭힘이나 위협의 부과인데 반하여 우리말의 성희롱은 성적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을 의미함으로써 영어의 sexual harassment가 내포하고 있는 권력의 개념이 빠져 있다고 볼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현재로서 적절한 대체어를 찾을 수가 없어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희롱은 남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희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들이며 동일한 피해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취약한 상황에 처하기 쉬워 전형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인식된다.

1.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의

성희롱은 1970년대 중반이후 부터 이미 서구의 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였고 성희롱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10월 서울대학교 조교 회롱사건이 법정 소송사건이 된 이후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의 일차 판결문은 성희롱을 직장 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권 혹은 실

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쾌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2) 성적 접근을 거부할 때 고용여부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현실적으로 성희롱은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으므로 Stanko(1979)는 성희롱을 채용과 해고, 승진과 강등, 보상과 징계에 대한 남성권력의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Greene(1982)도 성희롱을 작업환경에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남성상사, 관리인, 고객 또는 동료로부터의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성적 관심과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성희롱의 가해자를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여성들이 원치않는 성적 행위 뿐 아니라 성차별에 기초한 행위까지 확대해서 적용한 유럽연합(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의 규정에 힘입어, 성적인 행위는 물론 상대의 성에 근거하여 여성이라고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행위 및 모멸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같이 성희롱 속에는 불쾌한 응시나 음란한 시선 혹은 성적인 제스처와 같은 시각적 행위, 외설적 언급이나 암시 혹은 농담의 언어적 행위, 건드리기, 접촉하기, 애무, 포옹, 추행 그리고 강간 등의 육체적 행위와 함께 음란물의 전시와 과도한 서비스의 요구나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의 성적 봉사요구를 포함한다. 동시에 성차별적인 발언("여자가 하는 일은....", "여자주제에..."), 여성비하적인 발언(욕설이나 반말 등)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입각한 성차별 즉 차대접이나 청소의 요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처리까지 성희롱에 포함된다(장필하 외, 1994).

2. 성희롱의 실태

직장내의 성폭행이라는 제목으로 성희롱을 다루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1992)는 1991년 4월부터 1992년 7월까지 의뢰된 1024건의 상담전수 중 직장내 성폭행은 117건으로 11%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속에는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강간이나 성추행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치가 성희롱의 실상을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조적으로 한국여성민우회(이수연, 1993)가 서울지역 사무직 여성노동자 80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의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회수된 458명의 질문지중 87%에 해당하는 여성들이 성희롱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울근교의 11개 직장의 736명의 여성들(이중 65%가 사무직임)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신성자(1993)는 응답자의 92%가 성희롱을 경험하였으며 생산직보다 사무직의 성희롱 경험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한편 11가지 성희롱 유형을 모 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311명에게 제시한 김양희(1995)는 11가지 성희롱 중 한가지라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78.5%이며 이중 한가지 종류의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17.4%, 두가지 종류의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19.3% 그리고 세가지 이상의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41.8%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로써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직장여성들의 거의 80-90%가 성희롱을 경험하고 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무직 여성들이 생산직 여성들보다 성희롱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신성자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나 김양희의 조사가 사무직 여성근로자만을 포함하고 있어 생산직 여성들보다는 사무직 여성들이 오히려 성희롱에 더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결론을 내

리기는 어렵다.

서울에 있는 제조업(전자, 식품, 화학), 판매 유통업(백화점, 음식점), 용역 서비스(호텔), 기타 비제조업(무역, 금융기관) 그리고 전문기관(학교, 병원, 방송국)에 종사하는 여성 696명을 대상으로 직업별 성희롱 실태를 조사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91)는 성희롱의 유형을 물리적 폭행, 성적폭행, 그리고 언어적 폭행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성희롱의 경험여부만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판매서비스직 여성의 47.9%, 생산직 여성의 28.9%, 사무직 여성의 15.4% 그리고 전문직 여성의 13.5%가 물리적 폭행을 경험하였다. 또한 성적 폭행은 판매서비스직 여성의 27.7%, 전문직 여성의 17.5%, 사무직 여성의 13.3% 그리고 생산직 여성의 11.0%에 의해 경험되었다. 대조적으로 언어적 폭행을 경험한 여성들의 비율은 훨씬 더 높아 판매서비스직 여성의 95%, 사무직 여성의 85.9%, 생산직 여성의 79.9% 그리고 전문직 여성의 66.7%가 경험한 일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이 여성단체협의회와의 결과는 전문직 여성들의 피해 비율이 타직종에 비해 다소 낮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성희롱이 우리 사회에서 직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되어 있는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직장상사나 고용주임이 드러난다. 김양희에 의한 조사만이 남성동료에 의한 성희롱 비율이 직장상사에 의한 비율보다 더 높다고 보고하였을 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포함한 모든 조사결과들은 직장내 성희롱의 대부분이 직장상사나 고용주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밝혔다. 남성동료에 의한 성희롱도 무시할 수 없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성희롱은 남성상사가 권위를 이용하여 종속적 입장의 여직원에게 가하는 것으로 직장내 성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된 현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희롱의 결과로 많은 직장여성들이 분노를 느

끼고 모욕감이나 혐오감, 수치스러움 등을 느끼면서도 농담으로 그 상황을 넘기거나 모르는 척하기도 하며 여성들 스스로 성희롱 상대를 피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당황하여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한 여성들도 김양희의 연구에서 64.2%에 이르렀다. 여성들이 항의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여성민우회의 조사에 의하면(이수연, 1993), 소용없다는 생각 때문에(36.72%), 직장내의 인간관계가 결끄러워질까봐(20.5%), 그리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16.7%)였다.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성희롱을 더 적게 경험하는 여성들일수록 평등주의적 가정에서 성장하였거나(신성자, 1993), 진보적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김양희, 1995). 김양희에 의하면, 남성들은 더 강한 성본능을 지니고 있어서 성충동을 참기 어렵다고 응답한, 전통적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더 많은 성희롱을 당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Jensen과 Gutek(1982)도 성희롱을 경험하는 여성들은 그들의 전통적이고 보수적 성역할 의식을 바탕으로 남성의 성희롱을 자기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 더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은 아직도 친근감의 표현으로 인식되거나 직장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여성들은 성희롱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성희롱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불쾌감을 호소하는데 그치고 있고 남성들은 자신이 성희롱을 하고도 그것을 전혀 성희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성희롱을 대단히 사소한 일로 생각하고 있어 성희롱은 우리사회에서 이제 문제제기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폭력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시에 대표적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강간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개관을 함께 수행하였다. 강간은 그것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낯선 사람 강간, 아는 사람 강간, 데이트 강간, 부부강간, 아동학대 그리고 근친상간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데이트 강간과 부부강간을 개관하고 아동학대와 근친상간을 한데 묶어 아동 성폭력이라는 제목으로 개관하였다. 본 연구의 개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모든 여성들은 일생동안 한 가지 이상의 성폭력을 경험하며 대부분의 성폭력은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성폭력이란 아는 사람들에 의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행위이다.

2)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전체 발생건수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낮은 신고율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기도 하다.

3) 성폭력의 피해는 2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가장 많으나 연령이나 계층을 막론하고 어떤 여성이든지 경험할 수 있는 범죄이며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가정환경적 특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4) 성폭력은 재피해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즉 한 번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면 또 다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당하는 경향이 있어 성폭력의 재피해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5) 가해 남성들은 20세 이상-30세미만의 연령층

에 많이 분포하나 모든 연령층의 그리고 모든 계층의 남성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6) 성폭력이 발생하는 장소는 강간의 경우 숙박업소가 가장 많고 가벼운 추행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심한 추행은 한적한 길거리나 골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의 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7) 성폭력 가해자들은 폭력이나 협박 혹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육체적, 물리적 강제방식이나 위력, 위계, 속임수, 애원, 물랑공세와 같은 심리적, 경제적 강제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의 경우 그들의 순진함이 이용되고 심한 추행의 경우에는 한적한 장소가 이용된다.

8) 성폭력 가해자들은 성폭력을 부추기는 또래 집단을 가지고 있고 가족폭력의 역사와 난잡한 성경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들은 충동적 성격과 쾌락주의적 성충동과 함께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여성을 오로지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9) 성폭력은 피해여성들에게 단기적, 장기적 후유증을 남기고 그 후유증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그리고 가족관계 등의 중다차원에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를 갖는다.

10) 데이트 강간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이 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행동으로 일반강간과는 다르게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나 강간에 의해 시작된 결혼생활에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주로 드러난다.

11) 데이트 강간은 최초의 만남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이 1-5년된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장기간 알고 지내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순으로 발생한다.

12) 아내강간은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들에 의해 많이 저질러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내강간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도 않고 또한 처벌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13) 아동 성폭력은 만 13세미만의 아동들에게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일반적인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유형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14) 아동 성폭력 피해의 약 2/3는 8-13세 아동들에게서 일어나고 나머지 약 1/3은 7세이하의 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아동들에게서 일어난다. 초등학교 아동들에서는 강간피해가 더 많고 국민학교 입학이전의 아동들에서는 성추행이 더 많이 발생한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피해시기에 따라 상이한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이 특징이다.

15) 아동 성폭력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며 친부나 외양부를 포함하는 친족에 의한 피해가 크다. 특히 피해자와 부녀관계를 이루는 가해자가 친족 가해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16) 성희롱은 어떤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대부분 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남성상사가 권위를 이용하여 종속적 지위의 여직원에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아 성간의 힘의 불균형에 기인된 현상으로 인식된다.

17) 직장여성들의 80-90%가 성희롱을 경험하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모욕감이나 혐오감, 분노를 느끼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때로는 농담으로 그 상황을 넘기거나 모르는척 하기도 하고 가해자를 피하는 소극적 대응을 한다.

18) 평등주의적 가정에서 성장하고 진보적 성역할 의식을 지니고 있는 여성들은 성희롱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거나 성희롱을 더 적게 경험한다.

남녀 모두 성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남성 가해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는 여성들의 문제로 인식된다. 문제는 많은 여성들이 잘 아는 남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강간으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과 일반여성들이 지각하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의 차이는 성폭력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성폭력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성폭력 연구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지금까지 성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성학이나 사회학 혹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며 때로 정신과 의사들이 성폭력의 후유증이나 아내구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의 문제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인 데도 불구하고 연구참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특히 아동 성폭력의 경우에서와 같이 피해 아동이 아직도 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연령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다. 장연집(1992)의 연구에서도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피해 시기에 따라 각기 상이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성폭력 피해아동들은 성인이 된 이후에 또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아동 성폭력만큼 발달심리학적 접근이 요구되는 분야도 드물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특히 피해 아동들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접근은 물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접근도 요구된다. 연령에 따라 가해자의 특성이 다를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 불량한 청소년들과 함께 가정이나 학교에서 모범적인 학생들이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어떤 요인들이 성폭력 행위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곧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성폭력은 남녀간의 성관계도 아니고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도 아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침범하고 인격과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행위이며 범죄행위이므로 발달심리학자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중요한 연구분야임이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김광일(1985). '구타당하는 아내' 50례의 정신의학 적연구. 정신건강연구 3, 235-256.
- 김광일(1987). 아내구타의 대책. 정신건강연구 6, 23-36.
- 김양희(1995). "직장여성의 성희롱 경험과 관련정책에 관한 의식." 여성연구 1995년 겨울호 통권 제 49호,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아와 이죽내(1995). 아내구타 남편의 정신사회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제 34권 제 6호.
- 대검찰청(1992). 범죄분석. 1986-1990.
- 법무연수원(1994). 범죄백서.
- 신성자(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 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제 5집), 경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93, 5, pp. 93-110.
- 심영희(1990). "성폭력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연구, 창간호.
- 이경자(1992). "성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 37호.
- 이수연(1993). "87%의 사무직 여성, 성희롱 경험했다." 사무직 여성 겨울호. 한국여성 민우회.
- 이종걸(1996).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책- 법제도적 행동정책적 대응." 한국성폭력 상담소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장연집(1992). "아동 성폭력의 이해."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 제 7집.
- 장필화의 (1994).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안의 모색-지침서 개발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 장필화와 조형(1991). "한국의 성문화-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 8집, pp. 127-170.
- 장희숙(1996). 여성심리학. 서울 : 박영사.
- 최영애(1995). "우리 사회의 성폭력 실태와 성문화." 여성학 연구, 제 6권 제 2호 pp. 121-129.
- 한국성폭력상담소(1992). 직장내 성폭행 세미나 자료집.
- 한국성폭력상담소(1996). 안전한 어린이, 건강한 서울. 건전한 어린이 성폭력 예방 및 대책마련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 한국여성의 전화(1992). "매맞는 아내, 깨어진 삶." 한국 여성의 전화 개원 9주년 기념. 아내구타 공개토론회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1-0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성범죄 연구 1, 89-04.
- Ageton, S. S. (1983). Sexual assault among adolescents. Lexington, MA : D. C. Heath.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0). How to combat sexual Harassment at work.
-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buse :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 Free Press.
- Greene, K. K. (1982). Sexual harassment, management of the physically and emotionally abused - emergency assessment, inter-

- vention and counselling, C. G. Werner and G. R. Baren(ed), California : Capistrano Press.
- Jensen, I. W. & B. A. Gutek(1982). "Attributions and assignment of responsibility in sexual harass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8(4), pp. 121-136.
- Koss, M. P. (1985). The hidden rape victim : personality, attitudin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193-212.
- Koss, M. P., & Burkhardt, B. R. (1989). A conceptual analysis of rape victimizatio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3, 27-40.
- Marjot, D. H. (1982). Alcoholol, aggression, & violence. *The Practitiones*, 226, 287-294.
- Russell, D. E. H. (1983).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intrafamilial and extrafamilial sexual abuse of female children." *Child Abuse and Neglect*, 7, 136-146.
- Russell, D. E. H. (1984). Sexual Exploitation :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 : Sage.
- Russell, D. E. H. (1986). The secret trauma : Incest in the lives of girls and women. New York : Basic Books.
- Russell, D. E. H. (1988). Pornography and rape : A causal model. *Political Psychology*, 2, 41-73.
- Schechter, S. (1982). Women and Male Violence, Boston : South End Press.
- Schechter, S. (1982). Women and Male Violence. Boston : South End Press.
- Stanko, E. A. (1970). "Keeping in and out of line : Sexual harassment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Gender segregation at work. Sylvia Walby, Yale University.
- Tierney, K. J. & Corwin, D. L. (1983). "Exploring Intrafamilial child sexual abuse : A systems approach." in Finkelhor, D., Gelles, R. J., Hotaling, G. T., & Straus, M. A.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Beverly Hills, CA. : Sage.
- Wilson, S. K. Cameron, S., Jaffe, P. (1989). Children exposed to wife abuse : An international model. Social casework.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70, 180-184.

The realities and present conditions of sexual assault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alities and present conditions of sexual assaults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s. In this review, the three kinds of the rape and the sexual harrasment are contained, because sexual assaults can be subdivided to several types. It is indicated that all women can be victims of sexual assaults irrespective of their age and status, as the majority of sexual assaults typically are committed by the acquaintance. In conclusion, the developmental approach is requird for victims, because the victimized person indicat different symtom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al stage.

Key Word : sexual assault.